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21년 상반기 '젠더갈등' 논의 양상* -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1. 들어가며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녀의 정치·사회인식 격차가 지지 정당의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젠더갈등'은 2021년 상반기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였고 동시에 정치 이슈로 전면화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형성된 '젠더갈등' 구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성평등 정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년 남성들 사이에 회자되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여가부 폐지/강화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첨예한 이슈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증폭된 '젠더갈등'의 효과 속에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은 성평

등 정책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글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젠더갈등' 논의, 특히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면화·정치화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4·7 재·보궐선거 전후 관련 논의가 주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진 남초 커뮤니티의 젠더 이슈 관련 논의 지형을 분석하여, 이전까지 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젠더 이슈 논의가 어떻게 국회·정당 차원의 논의로, 차기 대통령 선거 이슈로 확장되며 '젠더갈등' 구도를 증폭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년 수시과제인 김원정·김선아·정윤미·이성준·윤빛나리(2021).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연구 내용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임.

2.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인 남초 커뮤니티는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 중 2030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한다고 알려진 곳 중 하나로, 특히 최근 들어 '젠더갈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언론에서도 그 내용이 자주 인용되었던 곳이다.¹⁾ 게시글의 수집은 이 커뮤니티에서 이용자 다수의 반응을 얻은 '인기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데이터 수집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이며, 데이터 수집 작업은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젠더와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성, 남성 등 가장 일반적인 젠더 관련 키워드²⁾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모두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게시글은 총 51,386건이었다. 이 게시글에 대해 추이 분석, 상위 빈출 키워드 분석, 그리고 게시글에 숨겨진 젠더 이슈 관련 세부주제 및 그 지형을 검토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실시했다.

3. 분석 결과

가. 게시글 추이

[그림 1]은 2021년 1월부터 8월 사이 남초 커뮤

니티에 작성된 게시글 수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 수가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 1~3월 사이 게시글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하루 동안 790여 개의 게시글이 올라온 4월 7일에는 20대 남성이 야당을 지지하고 실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2030 남성이 투표를 통해 '페미 정책' 추진을 비롯해 많은 실정을 한 현 정부를 심판했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2030 남성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그 다음 게시글이 크게 증가한 5월 초는 한 편의 점 기업 G사의 캠핑 포스터 '남혐' 논란이 있었던 시점이다. G사가 5월 한 달 동안 캠핑 관련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벤트 포스터에 나오는 손 그림이 지금은 사라진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쓴 손가락 모양과 같으며 '남혐' 이미지라는 의견이 퍼진 것이다. 당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G사가 페미니스트를 채용할 정도로 여성을 선호하고 남성은 무시하는 기업이라며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다.

다음으로 게시글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인 7월 7일 전후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³⁾ 당 대표와 다른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

1) 한겨레(2021.12.7.). "남초 커뮤니티에서 쓴 '화살촉', 어떻게 백래시 '승리 공식' 만들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240.html(검색일: 2022.2.7.); 경향신문(2021.5.14.). "근거 없는 '남혐' 정치인·언론 타고 공론장으로... '페미니즘 백래시'",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40600015#c2b>(검색일: 20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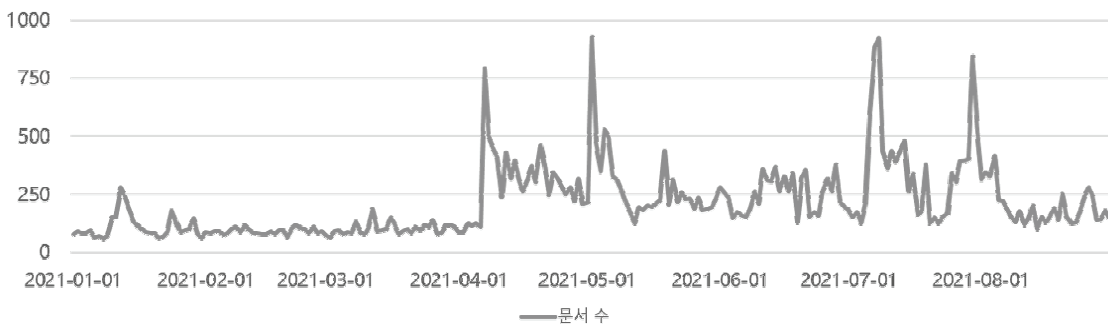
2) 페미, 젠더, 성별, 여성, 여자, 남성, 남자, 차별, 평등, 여가부, 폭력

3) 매일신문(2021.7.6.). "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별도 부처 필요없어" [전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70611135363370>(검색일: 2022.1.18.)

장한 시점이다.⁴⁾ 이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들이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게시되고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846개의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7월 30일은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국가대표 여자 선수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논의

가 회자되고 관련 언론보도도 증가한 시점이다. 당시 남초 커뮤니티에는 쏫컷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가 사용한 표현이 남성혐오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용어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로 확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그림 1] 젠더 이슈 관련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게시글 변화 추이(일간)

나. 상위 빈출 키워드 분석

다음으로 <표 1>과 <표 2>는 남초 커뮤니티의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에 사용된 상위 빈출 키워드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은 개별 단어를 기준으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키워드를 언급량 순으로 30위까지 나열하였고, <표 2>는 두 개의 연속적인 단어 시퀀스(sequence)인 바이그램(bigram)을 이용하여 상위 30개 빈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이다.

먼저 <표 1>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제외하고 페미니스트, 여성가족부가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상당히 많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상위 빈출 키워드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국민의힘 대표)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 이름과 함께 정책, 정치, 정부, 지지, 반대 등 정부 및 정치 관련 키워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2019년 사이 이 커뮤니티를 포함한 ‘진보성향’ 남초 커뮤니티에 나타난 상위 빈출 키워드와 유사한 경향으로(마경희 외, 2020), 젠더 이슈가 정치영역의 이슈, 정부와 정당 등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이 시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젠더 이슈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군대와 징병제, 선수, 경찰, 피해자 등이 있으며, 결혼, 가족 등 친밀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키워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4) 헤럴드경제(2021.7.6). “국민의힘, 내년 대선서 ‘여가부 폐지’ 공론화…유승민·하태경 공약 제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06000976>(검색일: 2022.1.18.)

<표 1>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상위 빈출 키워드(unigram)

순위	키워드	언급량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여성	41,800	16	징병제	2,277
2	남성	27,824	17	남녀	1,918
3	페미니스트	19,095	18	세대	1,890
4	여성가족부	8,759	19	젠더	1,797
5	한국	4,169	20	반대	1,729
6	폐지	4,147	21	지지	1,704
7	차별	3,912	22	국민	1,700
8	더불어민주당	3,584	23	성별	1,462
9	이□□	3,258	24	선수	1,417
10	정책	3,183	25	피해자	1,407
11	사회	2,950	26	교육	1,404
12	평등	2,751	27	결혼	1,401
13	정치	2,659	28	경찰	1,373
14	정부	2,307	29	이슈	1,372
15	군대	2,281	30	가족	1,337

바이그램으로 상위 빈출 키워드를 추출한 <표 2>는 남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의 주제와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언급량이 1천 건 이상인 최상위 키워드는 여성가족부_폐지, 여성_징병제, 차별_금지법이다.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_폐지는 언급량이 3천 건에 가까울 만큼 이 시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젠더 이슈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_정책, 페미니스트_정책, 여성가족부_장관, 남녀_평등, 여성_우대, 여성_가산점, 남성_인권 등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여,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페미니즘 정책을 통해 여성만 우대함으로써 남성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여

성_징병제는 남성_군대, 군대_여성 등의 키워드와 함께 이 시기 커뮤니티에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여성 징병제' 주장으로 수렴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목할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_여성, 여성_정치, 여성_지지율, 그리고 남녀_갈등, 젠더_갈등이다. 현 정부·여당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여성의 지지를 받는다는 내용 등 정부·정당이 남성과 여성 중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젠더갈등'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게시글 수집 과정에 차별, 폭력 등의 키워드가 사용됨에 따라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학교폭력 등이 자주 거론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상위 반출 키워드(bigram)

순위	키워드	언급량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여성가족부_폐지	2,939	16	남성_인권	292
2	여성_징병제	1,752	17	더불어민주당_여성	277
3	차별_금지법	1,070	18	여성_정치	276
4	여성_정책	879	19	남녀_갈등	275
5	인종_차별	624	20	남성_군대	271
6	여성_배구	570	21	여성_지지율	245
7	여성_군대	561	22	여성_가산점	245
8	페미니스트_남성	501	23	폐지_반대	244
9	젠더_이슈	366	24	머니_게임	243
10	남녀_평등	343	25	여성_결혼	238
11	여성가족부_장관	335	26	젠더_갈등	238
12	시민_단체	308	27	여성_우대	235
13	학교_폭력	301	28	군대_여성	229
14	페미니스트_정책	299	29	여성_사회	229
15	일본_여성	297	30	남녀_차별	227

다. 토픽 모델링 분석

다음으로 남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의 세부 주제와 논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작성된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다. <표 3>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젠더 이슈 관련 주요 토픽 및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이 시기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1) 페미니즘 비판 (2) 남성차별적 제도와 여성정책 비판 (3) ‘젠더갈등’ 관련 정치권에 대한 비판 혹은 지지 (4) 일상생활의 에피소드 (5) 남성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 (6) 대선 이슈로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 이상 6개 토픽이 추출되었다. 마경희 외(2020)에

서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보성향 남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관련 게시글에서 관찰된 네 가지 하위 주제 - (1) 온라인 페미니즘 비판 (2) 권력화된 여성단체, 여가부와 진보정치의 위기 (3) 여성 위주 성평등 정책 비판과 남성차별 주장 (4) 성폭력 이슈에서 남성의 피해자화 - 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라진 점은 이전의 정치 관련 논의가 ‘젠더갈등’과 관련된 정치권에 대한 비판 혹은 지지 논의로 확장되었다는 점(Topic3),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에 관한 입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2030 남성의 의견을 수용하는지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이다(Topic6).

<표 3>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관련 주요 토픽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페미니즘 비판	남성차별적 제도·여성정책 비판	'젠더갈등' 관련 정치권 비판/지지	일상생활의 에피소드	남성의 잠재적 피해 우려	대선 이슈로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페미니스트	징병제	페미니스트	문재양	차별	여성가족부
혐오	평등	더불어민주당	한국	금지법	폐지
차별	군대	이○○	선수	피해자	정책
여성혐오	차별	젠더	일본	이○○	정부
한국	사회	정치	여자친구	하○○	여성단체
여초커뮤니티	남녀	정책	배구	성폭력	양성평등
인종	출산	젠더갈등	얼굴	청원	윤○○
한남	할당제	세대	백신	피해	반대
남성혐오	결혼	이슈	친구	범죄	가족
단어	가산점	갈등	아내	성범죄	장관
반응	한국	지지	경기	한국	예산
이미지	국가	지지율	미국	인권	국민
운동	혜택	공정	어머니	자유	유○○
논란	적극적조치	정치인	아버지	서울	단체
갈라치기	의무	사회	올림픽	교수	윤○○
정상	능력	선거	코로나	경찰	세금
게임	복무	성별	세계	금지	찬성
사이트	나○○	평등	머리	가해자	서울
방송	성차별	대선	축구	처벌	대통령
온라인	취업	보수	접종	중국	홍○○
영상	제도	투표	병원	통과	안○○
스윗	해결	국민	전화	법안	호남
선동	역차별	오○○	가슴	폭력	부서
폴페미	차이	정부	중국	교육	후보
반대	성별	정당	대회	시위	복지
커뮤니티	군인	후보	영상	민주	통일부
언론	기업	이해	아들	잠재	시민
박▲▲	비율	문재인	여친	국회	박○○
여초커뮤니티	찬성	청년	양궁	캠프	입장
비하	반대	남녀	레전드	시장	여성인권

다음으로 각 토픽에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토픽은 '페미니즘 비판'으로, 페미니스트나 여성혐오/남성혐오에 대한 게시물이 많고, 전반적으로 페미니즘 관련 주장이나 관련 근거를 비판하는 내용, 페미니스트들의 여성혐오 비판을 부정하고 그들의 남성혐오가 심각한데도 그에 대한 비판이 경시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토픽에 포함된

사이트, (여초)커뮤니티, 온라인, 영상, 이미지, 방송 등의 키워드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페미니스트 주장의 소스들을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보여준다. 이외에 눈에 띄는 키워드는 스윗인데, 이 단어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스윗(서윗)남, 스윗당뇨남 등의 표현에 사용되며, 이는 스윗(sweet)한 태도로 여성을 배려하는 남성, 여성을 편드는 남성, 또는 페미니스트

남성을 비꼬는 말로, 특히 아재, 그세대(기성세대), 586 진보남성(진보꼰대)을 지칭하는 용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기성세대 남성들이 가부장제의 혜택을 누렸으면서 그러지 못하는 청년세대 남성의 고충을 헤아리기보다, 오히려 청년 여성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편을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이들은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받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구도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은 남성차별적 제도, 그리고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여성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남성차별적 제도로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징병제로 보인다. 징병제와 함께 군대, 군인, 의무, 복무, 가산점, 혜택 등의 키워드가 이 토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의 제안, 국민청원 등으로 논란이 된 여성 군복무 의무화, 군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문제가 되는 여성정책으로는 할당제, 적극적 조치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비율, 능력, 기업, 취업, 역사별 등의 키워드가 함께 이 토픽을 구성하고 있어, 여성임원 할당제 등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조치,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가 ‘능력’에 따른 기회의 공정한 분배 원칙에 반하여 기업 취업 시 남성에게 대한 역사별이 된다는 주장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주제가 하나의 토픽을 구성한다는 것은 남성차별적 제도와 여성우대 정책 모두 ‘평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토픽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으로 ‘젠더갈등’ 관련 정치권 비판

혹은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토픽에서는 페미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 정치, 정책 등의 키워드가 젠더, 세대, 젠더갈등 등의 키워드와 함께 주요하게 출현하며, 지지(울), 선거, 대선, 투표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게시물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가 대립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부동산 정책, 친중 외교정책, 방역대책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와 결탁하여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제기되며, 그러한 정책이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고,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실제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네 번째 토픽은 도쿄 올림픽과 스포츠, 코로나19, 그 외 일상적인 연애·결혼·가족 이야기 중 남성 또는 여성이 함께 언급되는 게시물로 보인다. 선수, 양궁, 머리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난 올림픽 때 양궁선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언급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토픽은 젠더 관련 정책으로 인해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투운동과 같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나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무고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전 시기에도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 중 하나이다(김수아, 2018; 마경희 외, 2020). 2021년 상반기에도 남초 커뮤니티에

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남성이 무고하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여성과 달리 남성이 성적인 피해를 겪었을 때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일부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여 2030 남성을 곤란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장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주된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로 인해 남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페미, 조선족 등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얘기 못 할 거 같다' 등의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이 여성이 겪는 차별 피해에만 편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성폭력 관련 법·체계가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만 대응하고 남성의 피해를 소홀히 다룬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젠더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각 당 대선주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토픽은 여성가족부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 정책의 문제, 여성단체와의 관계, 예산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윤○○, 유○○, 윤□□, 안□□, 홍○○ 등 대선후보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존립이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핵심적인 젠더 이슈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논의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폐지 주장이 주되게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한다면서 사실은

여성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으며,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 페미니스트 및 여성단체(여성계)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대선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지, 어떤 입장인지 논의하며 각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시물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가부 폐지하지는 얘기 없어서 안 찍겠다는 사람들, 만약 천천히 개선한다고 해도 대선 때 투표 안 하나?' 등과 같이 대선 후보 지지 여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젠더갈등' 논의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시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 이슈 관련 논의는 정치·선거 관련 논의와 거의 완전히 밀착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당명과 정치인 이름, 정치 및 선거 관련 키워드는 남초 커뮤니티의 상위 빈출 키워드에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젠더 이슈와 관련된 모든 토픽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남초 커뮤니티 내 젠더 관련 논의 구조가 여성의 편을 드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남성의 편을 드는 정치권을 지지하는 구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과 남성 중 누구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할 것을 종용하는 이 구도는 정당뿐 아니라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G사를 '남혐' 기업으로 규정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도는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 또는 피해자가 청년 여성이 아니라 청년 남성이라는 주장을 통해 더 강화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2030 여성에게만 ‘스윗한’ 586세대 남성들이 가부장제의 혜택을 다 누리기도 그러지 못한 2030 남성의 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청년 남성은 징병제 등 남성 차별적 정책과 할당제 등 여성우대 정책으로 인해 청년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차별받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약자로 규정하는 논의는 젠더 관련 법·정책이 여성에게만 편향적으로 적용되어 남성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진다. 성범죄 관련 법·정책이 대표적인데, 지난 상반기에는 차별금지법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페미니즘에 반대 의견을 내는 남성의 목소리가 묵살될 것이며, 남성 차별에는 개입하지 못한 채 여성 차별 개선에만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 남초 커뮤니티 내 젠더 관련 논의의 전개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 남성이 하나의 이해집단으로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다양한 대상을 향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성과를 얻은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4·7 재·보궐선거는 청년 남성들이 주류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호응하여 쏟아진 정치권의 ‘남성정책(대표적으로 남

녀평등복무제)’, ‘남협’ 기업에 대한 집단적 공격을 통해 G사 등 기업·기관의 ‘시정조치’를 얻어낸 경험, 자신들을 대변하는 남성 청년 정치인이 보수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사건 등은 이들의 효능감을 크게 상승시켰다.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 공약화 논의는 정치권에 남성 편들기를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대선후보들에게 페미니즘과 기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우리사회 ‘젠더갈등’은 청년 남녀 사이의 인식 격차나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어 온 반페미니즘 정서 차원을 넘어, 정치권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확인한 청년 남성과 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청년 남성의 집단적 결집과 정당의 지지율 상승이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이와 같은 반발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청년 남성의 정치적 결속력은 2021년 상반기를 지나며 질적으로 심화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성별 간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구도를 어떻게 넘어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수아(2018).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35(2): 3-35.
 마경희 외(2020).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